



[산업] 태양광 이어 수소까지 한화그룹 미래 경쟁력 확보 06



Economy

코스피	2282.79 (+4.63)	코스닥	753.82 (+0.78)
금리 (미국 3년)	0.861 (-0.41)	환율 (원/달러)	1197.70 (-7.10) (9일)

# 구속 면한 JY, '뉴 삼성' 가속페달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 법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삼성, 경영공백 우려 해소 미래산업 대규모 투자 관심



불법 경영승계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수사를 면하게 되면서 '뉴 삼성'도 다시 날개를 펼 수 있게 됐다. 준법 경영과 신사업 육성 노력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여전히 최종 판결이 남아 있는 만큼 광폭 행보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새벽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전날 저녁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결정한 것이다.

심사를 맡은 원정숙 부장판사는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를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 부재에 따른 경영 공백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안도의 뜻을 내비쳤다.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구

속영장 기각을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세계 등 각계에서도 다행이라는 분위기다. KB증권은 이날 보고서 통해 삼성전자 등 계열사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평가했다. 주식 시장에서도 삼성 계열사 주가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삼성 측은 일단 심각한 위협에서 벗어난 만큼, '뉴 삼성'을 향한 광폭 행보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대국민 사과에서 "대한민국 국격에 어울리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겠다"며 의지를 내보이기도 했다.

'뉴 삼성' 작업은 이 부회장 대 국민 사과 이후 속도를 낸 상태

다. 당장 노조 관계를 다시 정립하겠다는 이 부회장 약속에 따라 삼성은 지난달 서울 서초동에서 고공 농성 중이던 해고 노동자 김용희 씨와 합의를 이뤄내며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삼성디스플레이도 최근 조지된 노조와 협상을 이어가며 '무노조 경영'의 종말을 보여주고 있다.

노조활동보장과 시민사회 협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방안도 조만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최근 회의를 통해 삼성 측에 요구한 내용이다. 이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 등 준법감시위 권고를 적극 따르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 활동도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3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메트로미디어 '제2회 FFTK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 푸드테크 미래 연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푸드테크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새로운 기회를 찾는 자리가 마련된다.

전세계로 빠르게 확산된 전례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면역력과 건강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며 먹거리와 식품 시장의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글로벌 식품업계는 이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큰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이에 메트로미디어는 오는 6월 24일 서울 서소문 LW컨벤션 그랜드홀에서 '2020 퓨처 푸드테크 코리아(FFTK2020)'를 개최한다.

올해 두번째 열리는 FFTK2020은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푸드테크와 지속가능성(가제)'을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식품시장을 위한 선도할 혁신기업을 조명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식품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에는 홀거 토스카 유니레버 식품 연구개발(R&D) 센터장이 기조강연을 맡는다. 그는 이번 포럼에서 자신이 경험한 글로벌 식품시장 트렌드 변화와 미래식품 개발을 위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그의 강연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 행사명 : 2020 Future Food-Tech Korea(FFTK 2020)
- 주 제 :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푸드테크와 지속가능성
- 일 시 : 2020년 6월 24일(수) 14:00~17:00
- 장 소 : 서울 서소문 LW컨벤션 그랜드홀(2호선 충정로역)
- 주요 프로그램
  - 개막식
  - 기조강연 : 홀거 토스카 유니레버 식품 R&D 센터장
  - 세션강연 : 김기웅 심플프로젝트컴퍼니(위북) 대표, 이종훈 롯데액셀러레이터 투자본부장, 황성재 라온지랩 대표, 김혜연 엔싱 대표, 민금채 지구인컴퍼니 대표
  - 문의 및 참가신청 : (02)02-6020-6833, 이메일 : spring@acres.co.kr
  - 참가비 : 11만원(대학(원)생 사전등록 시 무료, 단 학생증 지참)
  - 주최 : 메트로미디어
  - 주관 : (주)에이커스



서울 첫 '폭염주의보'

서울 등 중부지역에 첫 폭염특보가 발효된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뉴스시스

# 국내 전기차 관련株, 테슬라 타고 썩썩

중 지역 전기차 수요 급증 테슬라 주가 올 127% 상승 국내 관련주들 '나비효과'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국내 전기차 관련주에도 나비효과를 일으켰다. 테슬라에 연동된 흐름을 보이는 국내 전기차 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테슬라 덕을 제대로 보고 있다.

8일(현지시각) 테슬라는 뉴욕 나스닥 시장에서 919달러에 거래해 949.92달러(7.26%)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2월 증가기준 사상 최고가인 917.42달러를 기록한 후 약 4개월 만에 최고가를

다시 썼다. 올해 들어 127% 상승했다.

지난달 중국의 전기차 판매 실적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중국승용차협회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5월 중국계 고객에게 상하이 모델3 전기 세단 1만1095대를 팔았다. 코로나19로 소비심리가 극도로 악화되며 4000대도 팔지 못했던 4월에 비해 205% 증가한 것.

웨드부시덴아이브스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중국 지역의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전기차 수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테슬라 관련주도 일부

반응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SDI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전일보다 8000원(2.13%) 오른 38만3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LG화학은 그동안의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한 듯 전일보다 1500원(-0.35%) 떨어진 43만2500원을 기록했다. 그레도 이달 초와 비교하면 9.21% 오른 수치다.

테슬라에 부품을 공급하는 아모그린텍(1.13%), 우리산업(0.25%), 센트랄모텍(-0.14%)은 혼조세를 보였다.

2차전기 관련 부품주들은 대체로 뛰어 올랐다. 엘엔에프(4.95%), 코스모화학(3.71%), 에

코프로(2.81%), 포스코케미칼(2.26%), 파워로직스(1.75%), 피앤이솔루션(0.59%), 일진머티리얼즈(0.32%) 등이 줄지어 상승 마감했다.

이달 예정된 테슬라의 투자자 설명회 '배터리 데이'에 대한 기대감이 선제적으로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평가다. 고문영 신영증권 연구원은 "테슬라 행보와 주가는 국내 2차전지 주가와 상관관계가 높다"며 "투자자들은 배터리데이에서 나올 건설전극과 관련된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 대한 수혜 정도를 주가에 반영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송태화 기자 alvin@

# "아시아나 인수 재협상 하자"

HDC현산, 인수의지는 확실 HDC 현대산업개발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의 요구에 HDC현대산업개발이 결국 딜 조건의 '재협상'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HDC현대산업개발은 9일 한국산업은행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밝히고, 인수상황 재점검 및 인수조건 재협의 등 한국산업은행 및 계약 당사자들 간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통해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성공적으로 종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HDC현대산업개발은 한국산업은행이 지난달 29일 발송한 공문과 관련, 인수에 부정적 영

향을 초래하고 인수 가치를 훼손하는 여러 상황들에 대한 재점검 및 재협의를 위해 계약상 'Long Stop Date(최종기한일)' 연장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회신했다.

Long Stop Date는 거래종결이 해당일까지도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거래를 해제할 수 있도록 당사자 간에 정해놓은 기한을 의미한다. 통상 관계 당국 인허가 등 당사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따라 거래종결일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를 대비해 마련 해두는 기한이다.

<3면에 계속>

/김수지 기자 sjkim2935@